

### 35. 구약에 의한 삶과 신약에 의한 삶

고린도후서 3: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 중에 구약에 의한 삶과 신약에 의한 삶의 대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을 대조해 보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삶

구약의 삶은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교재의 204쪽의 말씀에 의한 삶에 말씀에 따옴표를 쳐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의미에 의한 말씀의 삶은 옳죠. 지난번에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듯이 말씀에 의한 삶을 잘못 이해하는 그것이 문제이지요. 그것이 소위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에 따옴표를 치시거나 아니면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6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새 언약이 무엇이죠? 신약이지요. 이 새 언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문이라는 말은 문자라 그런 뜻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라는 그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영은 소문자로,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로 썼습니다. 원래 헬라어에는 영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성령을 가르칠 때도 영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영을 가르칠 때도 영이라는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대문자 소문자가 있었는데 헬라어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한 단락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썼어요. 성령을 가르칠 때도 소문자 영이라는 단어를 썼고 인간의 영을 가르칠 때도 똑같이 소문자로 된 영을 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을 가르치는 것인지 성령을 가르치는 것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해야 돼요. 그 몫을 주로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죠. 이 분들은 성경에 대한 언어를 알고, 성경의 배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이러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성령을 가르치는 것일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인간의 영을 가르친다고 판단할 때는 소문자로 표기하고, 성령을 가르친다고 이해할 때는 대문자를 써서 구분해서 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성경의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어서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 없이 영이므로 우리말 성경도 그대로 영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 구절이 성령을 가르치는 것인지, 인간의 영을 가리키는지 전혀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고 그대로 영이라고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 본문의 구절 같은 경우에는 문맥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다른 구절과 대조해 보나 의심할 나위 없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영어 성경이 다 대문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 보면 이 성경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새 언약의 일군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 언약은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신약은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에 의한 삶이 뭐냐?

그것이 구약입니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약이 문자에 의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에 의한 삶을 가리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무엇으로 동행했습니까? 믿음으로

다니엘이 무엇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으로

라합이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의해서 알듯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무엇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말하는 문자에 의한 삶을 구약이라고 말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약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닌데 최소한 예수님 시대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문자에 의한 삶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구약을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약에 대해서 신약이 성령에 의한 것이다.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어디 구약이 문자에 의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최소한 그 당시의 이해를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절을 로마서 7:6과 대조해 보면 이 말이 그말인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 그러한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여기도 바도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쪽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시면, **로마서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여기 영도 성령입니다. 똑같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이 새로운 게 뭐예요, 신약) 섬길 것이요 의문의(여기 의문이 문자라니까요) 묵은 것으로 아니할찌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자에 의한 삶이 최소한 그 당시에 이해하는 구약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삶이 뭐냐? 문자에 의한 삶이고, 신약에 의한 삶이 뭐냐?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문자의 삶이 뭐냐 하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게 말씀이니까 이 ‘성경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잘 지키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부분을 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가하면 지난 주도 살펴 보았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조직신학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예요. 맞습니다. 일점일획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을 오늘날에 우리의 현실에 잘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잘 지키면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살펴 본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맞아요. 정확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나옵니다만 지난 시간 나왔고, 이것은 절대로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문자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의한 삶이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문자에 의한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혹은 바울 당시에 이해했던 구약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자의 삶 그래서 말씀에 의한 삶을 제가 따옴표 해서 올바르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옴표 해서 말씀에 의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 의한 삶은 문자에 의한 삶인데요, 그 문자에 의한 삶은 실패했습니다. 구약은 실패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자 성경을 보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은 구약에서 신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 언약인 신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가장 주된 성경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새 언약은 신약이죠)을 세우리라.

어디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와 언약을 세우셨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느냐면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신약에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한 백성은 교회인 2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여 한 새 백성인 교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아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완성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고, 로마서 11장에 말한대로 말세지말에 이스라엘에 대규모로 구원받게 될 텐 데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세워져서 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로 예수님께 드러져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구약. 언제 세우신 시내산에서 세우신 구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구약과 같을 것이라고요 같지 않을 것이라고요, 다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과 다를 것이라고요. 사실 신약이 구약과 똑같으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죠. 구약만 연장되면 되는 것이죠. 확장만 되면 되는 것이죠. 다를 것이라 그러면 왜 다르게 될 것이냐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아니할 것은(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새로 세우시는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파하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파하였다, 하나님이 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했다. 그래서 33절 이제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본격적으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그 날 후가 나중에 보니까 말세지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그러면서 구약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다를 것이냐? 새 언약이 여기 다르게 나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고요)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그 법을 어디에 기록하여,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부터(하나님 백성이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구약이 실패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파하였습니까? 왜 파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제 말이 이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시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시죠.

아까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뭇로 삼으셨다고요 새 언약의 일군으로 삼으셨다. 자 그러면 새 언약, 신약입니다. 이 신약은 뭇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문자로 하지 않는 것이고,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니고요 신약은, 그 다음에 뭇라고요 뭇에 의한 삶이라, 성령에 의한 삶이라. 그러면 문자는 뭇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성령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문자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알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뭇로 이해하게 되냐 하면 그것을 문자에 의한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에 삶이 뭇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잘 지킴으로 그 공로와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문자에 의한 삶인데, 이것은 뭇하는 것이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음에 이르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의 복음 앞쪽에서 우리가 율법이 주어진 율법을 작게는 모세5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구약성경 전체로 볼 수 있고 율법을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 신약을 포함해서 율법이 주어진 4가지의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아마 복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혹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이 계명대로 잘 삶으로 그 대가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 언약을 잘못 이해해서 문자에 의한 삶,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나아가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죠.

왜? 그 능력이 그들 속에 없거든요.

우리 속에도 없습니다.

왜?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래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잘 지킴으로 그 공로로, 그 대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뭇냐 하면, 우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항상 다 지켜야 되요.

만약에 단 하나의 하나님의 계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되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그런 가치관으로 나아가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여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

님 앞에 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첫째는 뭐하고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요.

율법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인가를 보게 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시기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잘 됐어. 저 사람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잘 되. 대학교를 더 좋은 데를 들어갔어. 대학을 더 좋은데 들어가서 대학교 나오더니 더 취직을 잘 했어. 월급이 우리 자식 두 배는 된 데. 그래서 저 사람 미워.’

우리나라에서 감옥 갑니까? 감옥 가요? 안 가요?

미국에서는요? 안 가요. 미국에서 안 가요.

저는 일본 안 가봤습니다. 일본서는 가나요? 제가 이해하기는 안 갈 겁니다. 아마!

전혀 문제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그런 모습을 비춰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타락한 죄인가를 보게 되요.

그건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그대로 있는 한 용서받지 못하는 한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기 전에는 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하면, 죄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이만 살라고 그래’,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저 예수 믿는 다고 하는 것들 자기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래요. 저들이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갈 거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을 만큼 얼마나 그 생각부터가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안 비춰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굴에 온갖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데도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비춰져야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냐 하면,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 율법이 왜 주어졌다고요? 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은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욕을 너무 잘 해. 조금만 뭐하면 “에이~ 00” 이게 나와.

보통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집사도 됐는데 “에이~ 00”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하루에 다섯 번 욕했다면 안 하려고 노력하면 열 번 할걸요.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요,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넘어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은혜를 분지 않느냐 하면, 지금 자기가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9세 관람가. 빨간 거 동그라미.

그 사람들이요 그것 갖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9세 관람가라는 말이 없더라면요 그 영화 반도 안 볼 겁니다.

사람들 반도 안 볼 거예요. 볼 내용도 별로 없는. 가치 있는 것도 없는.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 반도 안 될 겁니다.

뭐 갖고 돈 버는지 아세요? 19세 관람불가 라는 그것 가지고 돈 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우리 욕망을 부추겨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범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게 율법의 목적이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세 번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한 행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갈만한 그런 의미의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얼마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뭐하냐?

세 번째, ‘안 되잖아, 인마!’

제가 욕했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 라고 그것을 딱 붙들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선생’ 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니예요.

삶의 규범이라고요.

아!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아니예요. 이게 순서가 중요하니까요.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서기 위한 게 아니고요, 율법은 이렇게 내 속에 어떠한 선한 것도 인식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사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예요.

그럼 문자에 의한 삶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 공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게 문자에 의한 삶이고, 그것은 죽음으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거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순종으로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요?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의미의 말씀에 의한 삶이죠. 참다운 의미의!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강조하되 잘 못 강조하면 실제로는 말씀을 받아들 이되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의도대로 받아들여 자기 삶을 그 앞에 엮드리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치관대로,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말 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그렇게 나뵈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부 단히도 노력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7:7) 그랬죠.

왜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의도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되, 신앙을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하죠.

뭘에 살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 주와 동행하게 될 때 말씀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이가 구분되시죠? 아직 안 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안 되는 분 이렇게(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언약을 폐하시고 새언약을 세우셨는데, 저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음 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파했다.

그들이 파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파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요? 안 돼요? 안 되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안 되니까 눈이 멀어져서 하나님의 올바른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과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는 없는 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나뵈도록 성경에 기초했을지는 모르지 만 규례와 규칙 몇 가지를 정해놓고 고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완전히 거짓신앙체계로 빠져 버리니까 그들은 그들 나뵈도록 그거 잘 지키니까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새 언약, 두 번째 신약의 삶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신약 은 뭘에 위한 삶이라고요? 신약은 문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요. 신약 은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느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러

면 성령에 의한 삶이란 또 뭐냐?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원래 나누어지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나누어지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누니까 문자에 의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나누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다른 말로하면 그걸 말할 때 그렇게 결혼반지를 말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결혼식 주보를 보면은 십자가에 반지 두개 끼어놓은 게 있잖아요. 요렇게 . . . . .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란 말도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토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말씀 잘 연구해서 그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문자에 의한 삶으로 전락해서 바리새인의 삶처럼 되고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없는 죽음에 이르는 거고요. 반면에 성령님만 강조하면서 말씀에 토대하지 않으면 그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율법주의로도 신비주의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약이 성령에 의한 삶이다 말할 때 그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토대를 두고 성령께 인도를 따르는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는 것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주에 살펴봅시다.

그러면서 새 언약의 특징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 하면 성령에 의한 삶이라 . . . . . 이걸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신약은 곧 ‘성령에 의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FF. 블르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세계적인 유명하신 신약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예요. 우리나라의 김세운박사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귀한 분이죠. 그분처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없죠. 지금은 플러에 계신데요. 김세운 박사님이라고 그 분이 FF.블르스 그분 밑에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분이 아주 귀한 세계적인 성서학자예요. 특별히 신약에 대해서 전공인데요. 성서학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고린도후서 1:22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뉴 센트리 바이블 캄엔터리라는 책에 보면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시간은 성령의 시대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인지 아시죠. 기독교인의 부활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그 사이, 이모든 사이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신약이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지금 우리가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다’ 라는 그 아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까 예p미야 31:33절에 보니까 신약의 특징을 말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하나님백성들 속에 . . . . .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시겠다고요? 그 마음에 . . . . . 그러면 그게 신약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구약과 다른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그 뜻이 무슨 뜻인가는 어디를 보면 아는가 하면 고린도후서1장을 보면 알아요. 바로 고린도후서1장이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1장을 다 찾아보시죠. 21-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It is GOD . . . . . 여기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견고케 하신 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게 우리자신이 아니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견고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견고케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안에서 견고케 하시기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고요? 우리 마음에 . . . . .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기록하시겠다고요?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뭘 보면 아는가하면 이 말이 뭐냐 신약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적힌 성경을 한 권 줄테니까 너희가 그대로 잘 연구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내가가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내가가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너희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 . . . .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마음속에 두시고 우리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을 신약의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무슨 뜻이었는데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우리를 빛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사역도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 성경에 보면 . . . . .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처음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거나 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빌리그레함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미국교회를 두고도 한 얘기죠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셔도 90%이상의 일들이 전혀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그대로 진행될 거라 . . . . .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도 전혀 예외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너무나 심각한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한 게 단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인본주의로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었어요? 규례와 규칙을 정해놓고 전통적으로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도 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고 따라가는 삶도 없이 오직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도 없이,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된 거고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끝 완성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없으면 가능한 게 단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약은 . . . . . 우리 신앙의 완성은 . . . . .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어떤 죄를 놓고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좀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겁니까? 인간은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어쨌면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금식합니다. 그러면 금식할 동안에 기운이 빠질 동안에는 안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보호 식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질 겁

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살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으세요? 옛날에 수도사들이요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수도원에 살면서도 거기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대로 묻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육신을 이기는게 아니구요(물론 기도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따로 떨어져 산다고 이기는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될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넘어졌다, 더 노력하면 더 넘어져요. 그럼 노력하지 말라구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거기에 있어야 될게 아니구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감동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믿음에 의한 삶이라니까요. 십자가에 의한 삶이라구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어제, 우리 다윗의장막 특별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이 감동을 주신다고, 이런 감동을 받았대요. 교회가 이전했는데 앞에 십자가가 크게 있는데 십자가 뒤에 반짝 반짝 빛나는 엄청난 보물이 감춰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물찾기를 하는데 거기엔 들어가지 않고 여기저기 찾고 밖으로 나가고 뒤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물이 있는 것 알리기 위해서 휘장을 거둬가면서 보물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못 찾더라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한편으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나 그걸 보고 올지 모르지만 보물은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이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보화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뒤에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의 보화, 십자가 뒤에 있구요. 자신을 이기는 보화, 십자가 뒤에 있구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 뒤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게 아니고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승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주님의 승리, 그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그 토대 위에 의지하여 서는 만큼 승리하거든요. 주님을 보는만큼 승리한다구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나?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선명히 인식되어지기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그 위에 믿음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더 성령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춰진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는데 초점을 두지 마시구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데 초점을 두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초점을 두시고 주님을 더욱 더 알기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알기를 더 초점을 두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이제 지금쯤은 보일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들을 말씀을 많이 강조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잘 연구해서 삶에 적용하는게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게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말이냐고 그랬을텐데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연구하는게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말씀에 전적으로 토대되어지되 우리 스스로 말씀을 잘 지켜 연구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명히 인식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먼저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누구를 좇아 행하라구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4절과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보시면, 여기 창이 있죠? 창문. 창문 좀 닫아보실래요? 조금만. 조금 더 닫아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님께 대하여 열리면 열리고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죄와 세상을 향한 문은 닫아집니다. 한 번 열어보세요.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세상은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과 좁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좁아지는게 아니구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넓어지면 세상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불을 끄면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가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어둠은 물러가라’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안 물러가요. 불을 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어두움이 있을 때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가다가 또 옵니다. 어두움이 물러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구해야 한다구요. 주님을. 성령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와 동행하는... 여기 한 가지 중요한게 있습니다. 24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무엇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네 가지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인데, 오직 성령의 은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직 십자가.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보십시오. 성령에 의한 삶과 십자가에 의한 삶이 나뉘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이미 우리 육과 정을 못 박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승리를 인식할수록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구요.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구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 아래 설수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절대 나뉘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 믿음에 의한 삶, 은혜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이 나뉘지지 않습니다. 이 반대가 뭐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이럴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사람의 교훈밖에 안되고 하나님 말씀 취해도 선별적으로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대로 취하고 욕심은 다루지 않고 세상은 다루지 않고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그 속은 온갖 탐욕과 탐심과 세상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서 중요한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것, 십자가에 의한 삶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행할찌니.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발자국을 땔지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좀 덜한데 여학생들은 지나가면 발자국이 착착맞잖아요. 맞추지 않아도 착착착착 오른 발 왼발, 3명이 지나가도 한 사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착착착착 맞잖아요.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은 뭘 가리키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길을 걷는 것에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모든 순간,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삶의 행로에서 성령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분의 발자국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그 삶을 사는 만큼 우리 삶은 변할 것이고, 그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령에 의한 삶이 선명히 보이시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선명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우리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에 토대해서 다음 주에는 조화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승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